

## 진영 대립의 정치와 방송의 정치평론

김 만 흠  
한국정치아카데미

### Camp-Divided Politics and Political Commentations on TV

Kim, Man Heum  
*The Korea Academy of Politics & Leadership*

#### 초록

18대 대선을 앞두고 종합편성 채널을 중심으로 주목을 끌었던 방송의 '정치평론'에 나타난 특성과 과제를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글이다. 방송의 '정치평론'은 신문이나 평론지에 게재된 전통적인 의미의 정치평론과는 달랐다. 그럼에도 현실 정치에 대해 해석하고 정치여론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전문 식견과 정치현실을 매개시키는 정치평론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기존의 한국 정치평론에서도 나타났던 정치적 대립구도가 그대로 재연되는 진영대립의 정치평론, 연성화된 방송을 매개로 하면서 새롭게 나타난 정치평론의 예능화, 새로운 시대적인 환경이 반영된 인터넷 '댓글'의 방송화 등을 방송 정치평론의 특징으로 정리했다. 급속한 방송 평론 시장의 팽창에 따른 질적 수준의 문제와 더불어 평론의 예능화가 갖는 양면성에 대해서도 과제로 제시했다.

- 주제어 : 방송평론, 정치평론의 예능화, 진영대립의 정치, 18대대선, (종합편성채널)

## Abstract

This is an essay on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commentations and arguments on TV,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t was written on my own participant experience as a commentator. They show new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traditional political criticism. They can be summarized as 3 characteristics as follows. 1) More heightened camp-divided arguments 2) Entertainment trend of political criticism 3) Use of SNS as a source of political opinion and information. New market of political criticism on TV not only makes new opportunity, but also throws us challenge to overcome. Imprudent TV criticisms of the disqualified, excessive entertainment trend of political criticism are tasks to overcome.

□ Key words : Camp-Divided Politics, Political Commentator, Political Criticism, TV Commentator

지난 18대 대선 기간 동안 종합편성(중편) 채널을 중심으로 방송에서 이른바 ‘정치평론’이 쏟아지다시피 했다. 민주적 정치공동체의 발전에서 방송, 특히 TV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각과 사례에 따라 상반된 입장이 있어왔다(Norris 2000, 231-4). 방송의 정치평론 역시 방송이라는 기존 매체의 속성을 안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지난 대선 국면에서 방송과 정치평론의 결합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새롭게 주목받은 방송의 정치평론은 한국정치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말하며 상호작용 하고 있는가? 그 정치평론의 현장에서 느꼈던 소감을 토대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해보려고 한다.

정치평론이 한쪽으로는 학술적 논문과는 구분되고 다른 한쪽으로는 정치인의 주장 또는 선전과는 구분되는 그 중간쯤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다(이동수 2011, 35-38; 김대영 2005, 53-68). 양 쪽의 중간에 있는 만큼, 양쪽의 특성과 결합될 여지도 있다. 학술적 뒷받침이 강한 평론이 있는가 하면, 언론의 정치 정보를 종합하는 형태도 있다. 객관적인 분석에 가까운 비평이 있는가 하면, 정당 대변인 이상으로 당파성이 강한 주장도 있다. 정치평론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사람들의 기준에 따르면, 이 중 어느 것은 정치평론이 아닐 수도 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이 글은 정치평론만이 아니라 유사 정치평론에 대한 이야기기가 될 것이다.

## I. TV와 정치평론

그 동안 정치평론은 주로 신문 등에 글로 쓰인 것들이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치평론은 방송, 특히 종편의 정치 비평을 많이 떠 올리게 하고 있다. 방송의 정치평론은, 글쓰기와 말하기의 차이, 신문과 방송, 특히 TV와의 차이 만큼 기존의 글쓰기 정치평론과는 다른 환경과 전략이 있을 것이다. 방송 평론이 글쓰기를 단지 말하기로 바꾸는 것만은 아니다. 해설 및 논평, 토론 등 프로그램 양식이 다양하며, 양식의 차이에 따라 메시지 전략에 미치는 변수가 다를 수 있다.

정치평론은 그것을 신게 되는 매체의 조건에 따라 제약을 받게 된다. 자극적이거나 가벼운 정보와 친화력을 갖고 있는 TV매체의 특성에 비해 정치는 무겁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방송에서 뉴스 보도 이상의 정치평론은 많지 않았다. KBS의 ‘심야토론’이나 MBC의 ‘100분 토론’처럼, 1주일에 한번 정도 있는 지상파 방송의 밤 또는 새벽 시간의 시사토론에서 가끔 정치적 사안을 주제로 다룬 경우가 그나마 방송에서의 정치평론에 가까웠다.

그런데 최근 종합편성(종편) 채널의 등장과 더불어 새로운 정치평론 시장이 열렸다. 마침 총선, 대선으로 이어진 보기 드문 정치의 계절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사안은 대중적 관심사였고, 신진 종편은 이를 정치평론의 형태로 편성해 방송했다. 정치 뉴스 보도에 해설과 토론을 동반하는 형태가 종편의 일반적인 정치뉴스 보도 방식이 될 정도였다. 종합편성 채널이었지만, 대선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정치뉴스, 정치평론 전문 방송이 됐다.

TV매체의 특성이다 저비용의 시청률을 의식한 방송 구조에서 정치평론이 예능화 된 경향도 나타났다. 새롭게 TV시장에 진출해 생존경쟁을 벌여야 하는 종합편성 채널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자극적이거나 경량화된 콘텐츠를 좋아하는 시청자의 욕구에 부합해야 하는 TV 매체의 상업적 기반이 대선 기간

중편의 중심 콘텐츠였던 정치평론에도 반영됐다.

기존의 정치평론이 너무 현학적이고 대중과 유리돼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생활 현실을 반영한 대중 친화적 평론이라는 경량화된 중편 스타일의 정치평론이 갖는 새로움과 장점도 있었다. TV 정치의 이런 특성에 대해 가벼움과 즐거움에만 기대는 문제점(amusing ourselves to death)에 주목하는 쪽도 있고(Postman 1985), 합리적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참여의 촉진이라는 긍정적 역할에 주목하는 쪽도 있다.

알다시피 매번 선거 때마다 선거 정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TV로 나타나고 있다. TV시대를 넘어 가장 보편적인 정보원과 소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인터넷보다 TV가 역시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고협회가 18대 대선 직후 네티즌 4,75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sup>1)</sup> 자신의 정치의사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매체로 TV를 꼽았다. 중복된 응답에서 응답자의 53.1%가 자신의 의사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매체로 TV를 꼽았고, 유선 인터넷과 모바일이 42.0%, 35.1%로 그 다음을 이었다.

정보에 대한 매체 신뢰도도 TV가 가장 높았다. TV에서 접하는 대선 정보의 신뢰도는 52.7%였고, TV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했던 인터넷의 대선 정보 신뢰도는 유선인터넷 38.5%, 모바일 32.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저널리즘, 특히 TV가 오늘날의 건강한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는 주장도 드물지 않다(Norris 2000, 231-51; 임상원 2011, 13-22). 노리스(Pippa Norris)는 민주주의가 굴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진단하면서 오늘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TV를 들기도 했다.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경마식 보도, 갈등과 부정적 뉴스의 확대, 정치를 전략적 게임으로 보게 만드는 선거 분석, 즉각적인 시정률을 겨냥한 선정적이고 피상적인 정치보도 등을 지적했다(Norris 2000,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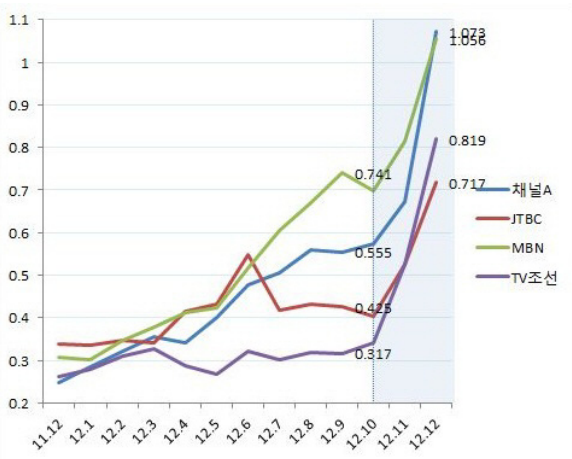
1) 한국광고협회가 인터넷 사용 현황과 광고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2011년 12월 대선 직후 실시한 '2012 KNP(Korea Netizen Profile)' 로 만13세 이상 국내 인터넷 이용자 4천751명으로 대상으로 했다.

우리의 방송 정치평론에서도 비판론자들이 지적하는 TV정치 보도 경향은 그대로 나타났다. 더구나 뉴스와 더불어 즉각적인 논평이 필요한 종편의 평론 방식에서는 이런 속성이 쉽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과연 종편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정치평론이 정치에 대한 냉소를 부추기는 쪽이었나? 그렇지 않은 쪽으로 생각한다.

사회적 자본 개념으로 유명한 푸트남(Robert D. Putnam)은 공동체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한 ‘나 홀로 볼링하며 놀기(bowling alone)’는 혼자 즐길 수 있는 TV보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1995a; 1995b). 그러나 TV 방송에서 활성화된 정치평론은 TV가 ‘나 홀로 살기’의 도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정치리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관심과 소통의 창구가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그런 매개와 소통의 창구로서 어떤 기능을 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평가의 대상이다. 어쨌든 대선 시기 활성화됐던 방송의 정치평론은 일상인들의 정치정보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기여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 국민들의 정치 보도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시청률로도 이어졌다. 정치 보도를 선도했던 MBN에 대한 시청자들에 대한 호응이 확인되자, JTBC를 제외한 나머지 종합편성 채널 모두 정치뉴스와 보도에 올인했다. 이들 세 종편의 정치 시사 비중은 전체 편성 기준으로 60% 정도였으며, 지상파 방송이 주력하지 않는 오전10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는 90%가 넘었다. 그래서 정치 비중을 높인 세 종편의 경우 소수점 시청률로 시작했던 시청률이 대선 경쟁과 정치보도에 불이 붙으면서 모두 1%를 넘어섰다.

대선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다 할 수 있는 12월 10-16일 기간에는 아래 <표>에서 보여주듯이 전체 시청률에서도 평균 1%를 넘어섰다(채널 A 1.1985%, MBN 1.1976, TV조선 1.0837%). 물론 5-7%대에 이르는 지상파 TV방송들과 비교한다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새롭게 종편에 의해 개척된 정치보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5% 내외에 이르고, 프로그램 내용 구성에서도 시사보도부분이 60-90% 내외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영향력은 작지 않았을 것이다.



※ TNmS, (김성규, 2012)에서 재인용

야권 후보단일화가 안철수 후보의 사퇴로 결론이 나며 대선 정국이 요동치던 날 밤 관련 뉴스에서는 종편 채널이 지상파 TV보다 시청률이 높게 나오기도 했다. 종편의 뉴스 방송은 단순 리포트가 아니라, 정치평론가들의 논평과 분석을 동반하는 보도였다. 종편 방송인 채널A는 속보에 이어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안철수 후보 사퇴 대선정국 긴급진단>이란 프로그램을 긴급 편성했다. 해당 프로그램 1부의 전국 기준 시청률은 3.371%였다. 그때까지 종편 시사보도 프로그램 사상 역대 최고 시청률이었다.

‘안 후보 사퇴 긴급진단’ 프로그램은 동시간대 방송된 지상파 보도 프로그램보다도 시청률이 높았다. “KBS 1TV 마감뉴스는 2.473%, SBS ‘나이트라인’은 2.442%였다. MBC ‘뉴스24’는 1.844%로 채널A의 1/2 수준에도 못미쳤다. 이 시간대 시청자들은 지상파가 아닌 종편을 더 많이 선택한 것이다.”(고정미·이주영, 2013).

그래서 민주당의 종편 채널 출연 거부 방침은 대선 여론 형성 전략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자성하는 대선 평가까지 있었다. 아무래도 출연하지 않거나 출연빈도가 낮으면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할 기회를 그만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을 보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전부가,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127명 중 112명). 일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3 가량이 종편을 시청했으며, 그 중 53.2%가 대선후보 판단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2) 도움이 안됐다는 응답도 46.0%나 되지만, 언론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도나 영향을 감안했을 때 종편 시청으로 도움이 됐다는 53.2%의 비율은 아주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저학력, 블루칼라, 고령층에서 그런 경향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왔다. 앞의 조사결과 기준으로 50대 이상의 종편 시청률은 75.2%에 달했으며, 43.5%가 대신 후보 판단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이는 18대 대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호의적인 유권자들이 종편에 대한 호의적 평가를 더 많이 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종편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II. 방송의 정치평론, 방송+정치평론

방송의 정치평론 수요가 급작스럽게 열리면서 그에 따른 문제들도 있었다. 정치학자, 정치인 출신, 의원 보좌관 출신, 기자 출신, 문화평론가, 비정치 분야 방송인 등 다양한 직군을 배경으로 30여명의 정치평론가들이 주로 활동했다. 평론의 유형과 수준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 방송사로서도 정치평론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TV 방송이라는 방송인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했다.

정치평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균형감, 기초 지식 등에서 문제가 심각한 경우들도 있었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종편이 값싼 정치평론가들 모아 놓고 보도로 위장한 내용을 대신 내내 방영해 문제가 됐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2) 민주당 대선평가위의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13년 1월 24-25일 양일간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방식 여론조사. 휴대전화 50%, 일반전화 50% RDD(임의번호걸기)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pm 3.1\%p$

“이런 시장 상황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최병성 2013).

그러나 대선 기간에는 평론의 질적 수준보다는 관련 정당의 문제제기에 따라 형평성 정도만 논란이 대상이 됐다. 민주당의 경우 종편 출연 거부를 했었기 때문에 종편 정치평론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요구나 항의를 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18대 대선 기간에 폭발적으로 등장했던 배경에는 대선 방송과 맞물린 종편의 출범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었다. 따라서 이제 초대형 정치 소재가 사라지고, 종편 또한 정비과정을 거치면서 방송 정치평론도 새롭게 정비될 것이다. 벌써 대선 이후 정치평론의 비중이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종편에서 정치평론은 여전히 그 비중이 크고, 종편 방송의 특성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18대 대선에서의 정치평론, 특히 방송 정치평론이 남긴 가장 큰 과제는 한국 정치의 극복과제인 진영간 흑백대결 구조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던 점이다. 정치평론이 정당정치 편싸움의 연장선에 있었으며, 그 일환에 가까웠다. 현 제도정치의 대립 구도에 따라 갈라진 편싸움의 논리대결, 담론대결, 목소리 대결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대영은 이를 두고 정치평론이 공동체를 위한 공론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의 세력화 전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김대영 2005, 103-61).

김대영은 주요 신문들의 사실과 칼럼, 즉 글로 쓰는 정치평론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토대로 그런 지적을 했었지만, 즉각적인 평론과 진영간 토론 방식이 많은 방송 정치평론에서 그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진영간, 후보간 대립이 가장 첨예해지는 선거 국면에서는 세력화 전략을 벗어나는 정치평론의 공간이 극도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대선 이후 종편 등을 통해 나타난 ‘정치평론’은 더 극단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당정치, 의회정치에서 나타난 진영 대립보다 더 극단화된 정치적 주장과 해석들이 종편 방송에서 거의 일상화돼 나타났다. 5.18 관련 ‘홍어 택배’와 같은 인종주의적 막말로 논란거리가 됐던 인터넷 카페 ‘일베’ 경향과 별 다를 바 없는 수준의 발언들이 논객의 이름으로 방송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김대영



이 말하는 진영간 정치세력화의 수단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와 방송 문화를 황폐화시키는 면도 보이고 있다 하겠다.<sup>3)</sup>

### Ⅲ. 정치평론의 예능화, 정치평론의 정치화

이렇게 보자면 18대 대선 기간 방송의 정치평론에서 드러난 쟁점은 크게 두 세 가지이다. 하나는 예능화된 정치평론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화된 정치평론이다. 또 다른 하나는 편견과 진영 대립의 극대화라는 인터넷 시대 사이버 정치여론의 문제점이 종편의 정치평론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능화된 정치평론은 이번 대선 기간 종편과 더불어 새롭게 드러난 경향이 다. 가볍고 쉬운 접근과 정치 정보에 대한 기대가 조화된 정치평론이 된 것이다. 정치를 생활인들에게 매개시키고 정치적 프리즘 역할을 하는 정치평론은 당연히 대중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예능화된 접근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또한 정치현실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 예능화가 중심이 돼버릴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럴 경우 예능화된 정치평론이 아니라 정치를 소재로 한 예능이 돼 버린다.

사실 대선 이후 최근까지도 정치적 사실, 논리(logos) 측면에서는 엉터리이지만, 개의치 않으면서 ‘정치평론가’의 이름으로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정치평론가가 아니라 정치를 소재로 한 새로운 예능인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유형의 어느 방송 출연자는 사실과 다른 주장, 과도한 주관적 평가와 막말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의 단골 대상이 되기도 했다(김현우 2013; 민동기 2013).

정치평론가가 정치사상가와 정치행동가 중간 영역이라고 했는데(이동수 2011, 35-8), 지난 대선 TV방송의 정치평론은 여기에 신문의 정치평론과 방송 예능의 중간 사이라는 또 하나의 중간 영역에 있었다. 너무 무겁고 어려우면 시청자로부터 외면당하고, 반면에 평론으로서 기본 논리 구조를 갖추지 못한

3) 근래 종편 등의 방송에서 정치평론을 빌린 극단적 막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돼 경고, 관련자 문책 등의 징계에 처해지기도 하고 있다(김현우, 2013).

채 방송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정치평론의 본질을 벗어나게 된다. 이런 긴장 관계의 스펙트럼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치평론이 존재한다면 방송의 정치평론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뉴스해설이나 대담, 토론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 평론이 있다. 예컨대 토론으로 보자면, 1인, 또는 한 주제를 놓고 100분간 이뤄졌던 KBS1라디오의 「열린 토론」과 같은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토론 프로에서부터 각 방송사의 주간 심야토론, 그리고 채널A 「캐드난마」의 갑론을박, 또 예능화 정도가 상당히 센 jtbc의 「썰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정치평론이 병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비교적 정통 스타일의 토론 프로들은 폐지되거나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새로운 형태로 활성화됐던 종편의 정치평론은 전반적으로 재정비돼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 IV. 진영 대립의 정치평론

18대 대선 기간 방송의 정치평론을 통해서 또 하나 확인한 쟁점이 정치화된 정치평론이었다. 진영간 적대적 대립이라는 한국정치의 현실이 정치평론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정치평론이 정치적 사안의 공론화를 통해 공동체적 공공성의 확보에 기여하길 바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다(김대영 2005, 103-86). 물론 정치평론의 위상과 역할이 평론가의 선택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의 현실, 시민사회의 정치문화, 매체의 속성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 보다 넓게는 우리의 정치권, 지식사회의 소통 양식과 토론 문화도 저변에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정치평론이 공동체적 공공성을 모아가는 역할을 해준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아니 그 이전에 정치가 상생의 정치, 공화의 정치를 해야 한다. 문제는 현실에서 그런 공론화 기능과 공화의 정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치와 정치평론 모두에 그런 기대를 촉구할 수 있다. 그냥 촉구하는 것을 넘어, 현실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능성에 토대를 둔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것을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 보았던 칼 슈미트(Carl Schmitt)는 권력 경쟁으로 말해지는 정치나 논쟁으로 말해지는 지식사회의 그것도 역시 같은 투쟁이라고 말했다(1992). 진영 대립, 세력화 전략, 각기 나름대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해소되거나 제거될 수 있어야 한다.

권력투쟁의 현장인 정치에 비해 좀더 객관적인 정치평론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타당하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정치 현장의 주체로부터는 떨어져 있고, 그만큼 직접적인 당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책임이 덜하다는 것이다. 정치평론이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객관적인 위치의 평론 세계에서 또 자신의 주관과 당파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정치평론에 나타난 평론가의 관점이나 당파성이 객관적 가치 기준에 따라 만들어지기보다는, 대부분 현실 정치의 당파적 대립 구조에 그대로 병렬하고 있다.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이나 이해의 기준도 그런 경쟁 구조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견 이해가 된다. 더구나 선거처럼 경쟁 구조가 뚜렷한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

방송의 정치평론은 해설, 좌담 등 여러 형태로 이뤄지지만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토론 방식이 된다. 정당별, 후보자별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의 방송 토론은 기본적으로 진영 대립 구도로 구성한다. 진영을 벗어난 구성은 자칫 편파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흥미있는 토론이 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따라서 기계적인 균형의 진영 대립 구도로 배치한다. 여기에서 자신의 객관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다보면 자칫 진영 구도에 불균형을 초래하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다. 결국 진영 대립의 정치토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생산적인 소통의 토론 공간은 더욱 없어진다. 지난 18대 대선 때도 선거일 1달 정도를 남기고부터는 직접적인 진영 대립의 토론과 평론이 두드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대립 속에서도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방송에서 토론은 상대에 대한 공박이고 우군의 단합대회이다. 이런 토론회에서 상대에 대한 공박과 합리적 논지 중 어느 쪽이 실리적으로 도움이 될까, 가끔 궁금해지기도 한다.

단합대회를 넘어서는 호소력을 가지려면 진영논리에 대한 집착보다 합리적 토론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미미한 모양이다. 단합대회 효과만이라도 제대로 거두는 경우라면 성공적이라 보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평론은 현실정치의 세력 싸움 도구를 넘어서야 한다. 특히 즉각적인 정치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방송 정치평론은 현실의 권력투쟁 게임에 과도하게 종속돼 있다. 현실 정치가 적나라한 권력투쟁 현장 그대로 굴러간다면, 정치평론은 현장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그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적 담론을 공론화 시키는 선도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적어도 정치적 양극화와 여야의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한국 정치의 공인된 문제점에 마주하면서 대안을 논의하는 정치평론이 힘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V. 인터넷 ‘정치댓글’의 방송화

인터넷과 SNS 시대가 만든 정보망, 사이버공동체의 특성은 정치여론 형성 과정에도 반영됐고, 종편을 매개로 한 방송 정치평론으로도 이어졌다. 인터넷 시대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획기적으로 용이하게 했지만, 다양한 정보를 통한 소통과 통합에 기여한 것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주장과 선입견에 반대되는 의견은 배제하고, 자신에 동조하고 뒷받침하는 정보를 강화하는, 인터넷 정보공동체의 문제점은 이미 지적돼 왔다(Keen 2007).

조화순은 2008년 촛불 집회를 둘러싼 인터넷 상의 소통과 토론을 사례로 분석하면서 인터넷 연결망이 갖는 편향성과 배타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다중의 참여를 통한 이른바 ‘집단지성’이라는 긍정적인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주장도 있었지만(김호기 2008),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를 사례로 연구했던 조화순은 인터넷망을 통한 이른바 ‘사이버액티비즘’에서 보편적인 집단지성보다는 편향성과 배타성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2008).

박승관은 인터넷 소통의 문제 이전에 우리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자체가 우군(友軍) 끼리의 교류에 한정돼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2012, 22-91). 진정한 소통이라 할 수 있는 경계 밖과의 교류, 즉 ‘엑소가미(exogamy)’보다는 경계

내의 교류, 그들만의 교류라고 할 수 있는 ‘엔도가미(endogamy)’가 압도하고 있다며, 한국사회 소통구조가 민주주의적 기반과는 배치돼 있다고 비판적으로 진단하였다. 그들만의 교류, 그들만의 유대는 그들 밖의 상대에 대해 배타적 경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사회 이런 소통 구조의 한계가 인터넷 연결망과 사이버액티비즘에서는 더욱 극대화돼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에서 한때 도입됐다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보류되고 있는 ‘모바일 투표’ 참여에서도 그런 ‘사이버액티비즘’의 한계가 핵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정보의 보편적인 검증과 수렴보다는 소수 세력이 주도하는 특정 경향이 사이버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정치적 세력 기반을 만드는 경우였다. 이렇게 형성된 정치적 성향과 세력은 극단화, 배타성 등이 두드러졌다. 특정 세력의 조직화 전략으로서 매우 유용했지만, 국민 다수의 보편적 지지를 받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됐다. 다수의 지지를 받아 집권하려는 제1야당 민주당의 전략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런 인터넷 정보와 담론이 종편의 등장과 더불어 방송의 정치평론으로도 이어지게 된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인터넷과 SNS라는 시대적 환경은 기존의 지상파 방송에도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극단의 주장이나 막말들이 다중을 상대로 하는 방송, 특히 정치보도나 정치평론으로는 쉽게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의 방송을 넘어 파격을 시도하고, 소수를 겨냥한 자극적 상업 방송에 의존하게 된 종편은 이런 인터넷 정보를 생방송 체제와 더불어 일부에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송화 시켰다. 황색저널리즘과 극단적인 편향성이 혼재된 정치 소재의 방송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제5조), 공정성과 공익성(제6조)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편 방송사 내부에서 공적 책임과 공익성과 방송의 원칙을 엄격하게 구현하려는 자세는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못했다.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라는 외부적 규제에 의해 제제가 가해지고 있다. 곧바로 개선되지는 않고 있지만, 점차 개선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2%를 겨냥하는 방송을 지향하는 한, 그에 따른 한계와 위험성은 항상 있다. 예컨대 1% 내외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종편에서 2%의 시청률은 대

단한 성공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보편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극단화된 주장이나 막말도 이런 소수를 겨냥할 경우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1-2%를 겨냥한 방송을 할지, 시청률이 1-2% 정도라 하더라도 국민 다수를 겨냥한 방송을 지향할지는 방송사의 선택에 달려 있다.

## Ⅵ. 정치의 변화, 정치평론의 변화

지난 해, 안철수 후보는 진영대립의 증오의 정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를 화두로 던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국민 다수도 공감했다. 그러나 그 자신이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내놓지 못하기도 했지만, 진영 대립으로 나타나기 십상인 권력 투쟁의 정치현장에서 진영 대립을 넘어서는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었다.

근본적으로 정치갈등과 공존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차이를 전제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한다. 하나의 진리를 전제한다면 전제정이 되든지, 흑백대결이 된다. 서로간의 대립과 경쟁은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어느 한 쪽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군과 상대방, 모두 약점과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흑백의 대립 구조로 보아서는 안 된다. 차이에 대한 인정 속에서 공존을 모색해 가는 것이다.

현실 정치사회가 어느 한쪽이 독점하는 체제에서는 차이를 인정하는 공존의 공동체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사회제도와 구조가 공화적 공동체 모델에 부합해야 된다. 정치적 실천이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 여러 부분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 바로 옆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했던 정치평론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방송에서의 정치평론은 평론가의 성향에 따라서만 좌우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방송 정치평론의 시장 환경, 방송사의 선택에 결정된다. 방송이 되었을 때 방송의 정치평론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 특히 TV 방송이 갖는 경량화, 오락화 경향은 방송 평론에도 불가피하게 적용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로운 장점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 황색저널리즘에 편승하는 경향이나 유사 정치평론 등의 문제는 극복과제가 되고 있다. 현실정치의 진영 구도와 권력투쟁에 과도하게 종속된 정치평론의 문제,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도 과제이다. 그 변수는 1차적으로 방송환경이며, 이 방송환경과 정치상황, 그리고 평론가의 역량과 선택에 따라 향후 방송 정치평론의 경향은 결정될 것이다.

- ▶ Submitted : 2013. Nov. 06.
- ▶ Reviewed : 2013. Nov. 14.
- ▶ Accepted : 2013. Nov. 18.

## References

- Jho Wha Sun. 2008. "Cyber-activismgwa Sukeui-Minju-juuiui Ganeungseong? Choppul-siwi Gwanryeon Gesipan Bunseok." Je9hoe Jeongbo-munhwa Forum.
- Keen, Andrew. 2007. *The Cult of the Amateur: How blogs, MySpace, YouTube, and the rest of today's user-generated media are destroying our economy, our culture, and our values.* New York: Doubleday.
- Kim, Dae Young. 2005. *Gongronhwama Jeongcchi-Pyeongron.* Seoul: Chaek-sesang.
- Kim, Ho Gi. 2008. "Choppul-jipheowa Segyehwaui Jeongchi." Choppul-jipheowa Hanguk-sahoe. Symposium. Hanguk-jeongcchi-sasang-hakhoe.
- Kim, Hong Woo. 2011. "Malgwa Jeongchi."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Criticism. ed. *Mediawa Gongron-jeongchi: Jeongchi-pyeongroniran Mueosinga?* Gyeonggi: Ingansarang.
- Lee, Dong Soo. 2011. "Jeongchi-pyeongroneseo Lexiswa Logos."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Criticism. ed. *Mediawa Gongron-jeongchi: Jeongchi-pyeongroniran Mueosinga?* Gyeonggi: Ingansarang.
- Lim, Sang Won. 2011. "Gongjeok Youngyeok-euroseo Jornalisme Gwnahan Sayu."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Criticism. ed. *Mediawa*

- Gongron-jeongchi: Jeongchi-pyeongroniran Mueosinga?* Gyeonggi: Ingansarang.
- Mediatoday*. 17. Jul. 2013. “Bangsongbeop Eogimyeo 'Makmal-bangsong Apjangseon Jongpyeon Channel A.”
- Norris, Pippa. 2000. “The Impact of Television on Civic Malaise.” Susan J. Pharr and Robert D. Putnam, eds.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hmynews*. 29. Apr. 2013. “[Jongpyoenui Minnat④] Daeseon Han Dal Jongpyeon Sisabodo Program Sicheongryul Jibjung Bunseok.”
- \_\_\_\_\_. 20. Dec. 2012. “[Jonghap]Daeseone 'All-in'han Jongpeyon 4gaesa, Munje-neun Daeseon Ihu.”
- Park, Sung Gwan. 2012. “Hanguk-saheowa Communication Endogamie.”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Criticism. ed. *Hanguk-Minju-juuiwa Eonronjayu*. Gyeonggi: Ingansarang.
- Postman, Neil. 1985. *Amusing Ourselves to Death*, London: Methuen.
- Putnam, Robert D. 1995a.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Vol.6, No.1
- \_\_\_\_\_. 1995b.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fo Social Capital in America,” *Politics and Political Science*, Vol.28, No.4.
- Schmitt, Carl. 1992. *Jeongchi-jeokin-jeosui Gaeneyom*. Kim, Hyo Jeon. trans. Gyeonggi: Bobmunsa.
- Views&News*. 09. Jul. 2013. “Bangtongwi, Jongpyeon4sawa NewsTe Sijeong-Myeongreyong”
- YTN*. 2013. “Bangsong-tongsin-simuiwi, Jageukjeok Naeyong Jongpeyon-program Jungjing-gye.” [http://www.ytn.co.kr/\\_ln/0102\\_201307111818128923](http://www.ytn.co.kr/_ln/0102_201307111818128923)